

수행중심 승가상 실현 '초석'

선원 전산관리·율원인가 의미

'선풍진작' 수행승 우대풍토 기대 율장교육강화 승가 위계질서 확립

조계종 교육원이 선원 안거 성만자 전산관리 사업과 <선원총합> 발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宗旨)로 한다(종헌 제1장 제2조)는 선종 위주의 종지종풍에도 불구하고 선원과 안거 결제대중에 대한 체계적인 수행이력 관리와 현황 파악이 전문한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매번 안거 때마다 조계종 소속 2천여명의 스님이 결제에 들어가지만 전국선원수좌회에서는 발간해 온 <전국선원 정진대중명단>이 유일한 기록이 될 정도로 종단은 수행이력 관리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98년 가을 구족계 수계식에서 '선원 8만거 미만'자가 불명확한 자료를 제시, 수계를 받아 중앙총회에서 문제가 됴으로써 차제에 선원 결제 대중의 수

행이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번 사업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물론 지난 7월 발표된 조계종 중장기 사업계획인 6대 중책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수행과 포교중심의 승가상 구현'이란 중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교육원이 19일 교육원회의에서 처음으로 4곳의 율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한 것도 호트러진 승가 위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계율과 수행을 강조하는 종단의 풍토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이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몇가지 중점 추진 방안들은 지난해 말 야기된 종단 분규사태의 원인이 승가 위계 질서의 문란과 수행기풍의 타락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란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물론 조계종이 갖은 분규에도 불구하고 소수 종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나름대로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으로서 대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에는 묵묵히 견

성불이란 본분사에 매진중인 선방 수좌 스님들의 정진력에서 비롯되었다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같은 선원의 엄청난 잠재력을 종단 차원에서 결집해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의 발전과 국민 정신문화의 선양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 불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선원도 이제는 비밀스런 미지의 공간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수행 풍토 확립의 근원으로서 종단적인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21세기 정신계를 선도하는 선종을 드날려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일부 선원에서는 종단의 불필요한 간섭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나, 교육원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 수좌 스님들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낼 방침이다.

안거 성만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질 경우 수행승보다는 수행승이 우대받는 풍토가 새롭게 조성될 것이란 기대감도 있어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조계종 교육원은 19일 제42차 교육원회의를 열고 승가 위계질서 확립과 수행기풍 진작을 위한 '승가 기본 교육 종합대책안'을 확정했다.

사찰주변 개발가속화 '불보듯'

그린벨트 해제와 사찰수행권 침해

해제권역 안에 전국사찰 60여곳

건설교통부가 7월 22일 확정 발표한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은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 등 7개 중소도시 권역을 전면해제하고,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해권 등 7개 대도시 권역을 부분해제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교계 현안으로 제기되는 것은 사찰이 집중적으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계획의 칼자루를 도시확장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자체가 쥐게 된다는 데 있다. 이미 지방자치체가 시행되면서 사찰주변이 종교적 전통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기보다는 관광지화하여 개발이열을 행하고 지방세 수입을 늘리려는 지자체의 개발정책에 시달려온 교계로서는 엄청난 도전이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방치할 경우 사찰인근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인해 사찰환경은 급속도로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그린벨트해제 반대운동은 사찰 인근지역의 투기와 개발 바람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권역에 포함된 사찰은 전국적으로 60여곳에 이른다.

또 그린벨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현재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권역별 선심성 향정으로 이루어져 투기꾼의 주머니만 불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이는 그린벨트해제 결정과정에서 건설교통부가 환경부 문화관광부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배제한 것은 물론 도시계획전문가 시민·환경단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등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데 있다.

그린벨트가 도시민의 쾌적공간과 야생동·식물 서식, 사찰의 보존과 도시의 확대, 교통문제 심화를 막는 중요한 수단인 되는 상황에서 김대중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환경영향평가 후에 풀 것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위배되어 투기를 양성화시키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환경단체들과 교계에서는 그린벨트가 이번처럼 쉽게 정치적 이해에 따라 해제된다면 국립공원이나 문화재 보존지역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따라 교계에서는 7월 28일 그린벨트 해제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차로 교계내부의 공감대 형성과 그린벨트해제 국민행동 등 그린벨트 해제 반대운동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지자체의 도시개발계획시 각 시읍면연합회의 참여를 보장하여 사찰인근의 건축행위와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wkim@buddhapia.com)

한국인의 특색의 하나는 '오기'라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다. 춘향이는 부당한 변사또의 강압에 오기로 맞서 백성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준다. '오기'는 적에게 당할 때는 끝까지 자신의 주체를 고수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안으로 향할 때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조선왕조 500년의 당파싸움이 그 예이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 식민지라고 일컬어지는 IMF관리체제에 있다. 여당이 모두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난을 맞았

을 때 불가불 집권당이 시국을 주도하고 야당은 최대한 협력적이어야 할 것이다. 절실한 것은 국적이 우선임을 자각하고, 당파싸움과 같은 '내'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내 자식이 못되는 것보다 배 이쁘다는 식의 오기는 그만두는 것이다. 지난해 수해복구비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겨우 지난 6월이 되어서야 복구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웬걸, 불과 2개월도 못돼 또 폭우로 엄청난 홍수피해를 자초했다. 아는 총리인준부터 시작해서 틈만 있으면 지역차별 발언

등으로 민심을 어지럽히는 등 사사건건 여의 뒷다리만 잡고 있는 것이다. 또 언론매체는 불명분한 내세워 양비론을 전개하며 정치권을 매도하는 데 시비는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자기 담은 국세청을 이용하여 180억의 돈을 거두어가도 상관없이 여에 대해서는 애매한 링크코트 한 장의 거래를 갖고 들고 늘어지고 있는 것도 불쌍 사납다. 연극배우 출신 장관이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2만불의 격려금을 받았다고 해서 쫓아내고 링크코트에 관련

된 청문회를 열었다는데, 이 참에 국세청을 통해 얻어낸 정치자금의 사용처도 분명히 밝혀지면 좋겠다. 죄는 여야 구별없이 철저히 가려내으로써 사회정의의 기대할 수 있다.

국적인 여·야의 구별없이 힘을 합쳐 공정사회를 이루어 국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갈망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정치인의 모습은 정치를 불신케하고 시민의 차원에서 부정부패를 가려내야 하는 판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목어 국적 우선

김용운(현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한글의식교육원



한일 양국 불교는 '세계일화'를 위한 공동정진이 필요하다. 사진은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장면.

문화교류 토대 '世界一花'

1999년 광복절에 되돌아 본

한일불교 100년

일제치하 왜색불교 강점 70년대 학술교류 '우호적'

1895년 스님의 도성출입금지가 일본 스님에 의해 풀린 이후 20세기 초 한일불교교류는 한반도 침략의 도구로 전락했다. 광복 이후 왜색불교를 척결하려는 비구승대회와 열린기도 했으나, 60년대부터 차츰 교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 현재는 문화 음악 신행 등 다방면으로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20세기 마지막 광복절을 계기로 20세기 한일 불교교류사를 되짚어 본다.

1901년~1910년 한일합방까지 일본불교계는 한국불교계의 종속화를 시도한다. 1908년 이회관스님은 일본 조동종과의 합병을 추진, 1910년에 국내 교단과 아무 상의없이 일본 조동종과 7개 조항의 연합조약을 체결해 한일불교 합병을 성사시켰다.

1911년~1945년 해방까지 1911년 사찰령을 반포해 한국 사찰을 통제하기 시작한 조선총독부는 1912년 '조선 선·교양종 각본 산 주지회의원'을 건립했다.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취자가 만연하자 용성스님은 총독부에 총독부에 스님의 대처(帶妻) 식육(食肉)을 금지하는 건백서를 1926년 제출하지만 같은 해 10월 총독부는 스님의 대처 식육을 인가하도록 사법을 개정했다.

1946년~1969년까지 1960년에 한국불교 종단대표가 초청되고 일본 진언종의 친선사절단이 내한하는 등 교류가 시작된다. 1966년에 송산스님은 동경에 흥법원을 개원 일본 포교에 나서며

일본 진출로를 개척했다.

1970년대 1970년대는 동국대가 일본 구락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으며 본격적인 학술교류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1973년에는 원광대가 제1회 한일불교 학술대회를, 이어 동국대도 일본 대장대와 공동으로 한일 불교학술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학술교류가 활발해진다.

1980년대 대우재단 후원으로 일본내 한국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져 160여점 이상의 고려문화가 확인됐다. 1983년에는 한국스님으로는 처음으로 삼중스님이 일본 재사자에게 설법의 장을 펼쳤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힘입어 한중일 불교대회 개최되는 등 삼국불교 교류도 이루어진다. 1987년에는 보물급 조선승가 사리들이 일본에서 60년만에 반환됐다. 고려사 등 일본 속의 한국 사찰이 건립돼 양국 불교교류의 연결고리가 되었다.

1990년대 한일공동재단이 꾸려져 일본내의 한국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졌다. 96년에는 한일불교교류를 바탕으로 한중일 불교교류대회가 열려 동아시아 불교벨트를 형성했다. 1999년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20차 대회가 열렸다.

미래지향적 관계 모색 한일불교교류가 앞으로 더욱 지속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수탈 문화재 반환의 문제이다. 일본이 한반도 침략기에 수탈해간 문화재는 그 수량마저 제대로 조사되어 있지 않다. 한일불교교류대회 등에서 해마다 양국 대표들이 발표하는 성명들이 형식적인 구호로만 그치고 있어 실행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99학년도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2. 교과목 및 교수

요일	과목	교수	내용
월요일	아함경	최봉수(동국대)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의 원음의 중일아함, 잡아함경
화요일	능엄경	송찬우(승가대)	대승경전중의 수행요체의 능엄경 9, 10권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정경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양대학(2년)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99년 8월 7일~99년 9월 4일(토) (서류전환)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통신반(30명)	①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② 포교사 취득자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3. 개강일시 : 1999년 9월 6일(월), 7일(화) 오후 7시

4. 입학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장씩)을 이수자에게 연구원 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732-1206~8 / FAX 732-1207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년2회(매년 2월, 8월)
■ 모집정원 : 150명

1. 교과목

1년 교과목 : 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2년 교과목 :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

2. 정규반, 통신반 개설

3. 문의처 : ☎ 732-1206-8 / FAX 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1999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1999년 9월 4일(토) 오후 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 의식 · 송주 장엄법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입종·매장·화장 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	①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② 포교사 취득자 ④ 포교당 운영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99년 8월 7일(토)~99년 8월 31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통신반법당)

3. 입학금 : 일십만원

4. 원서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8/FAX 732-1207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5.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동산불교 의식교육원